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저출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김은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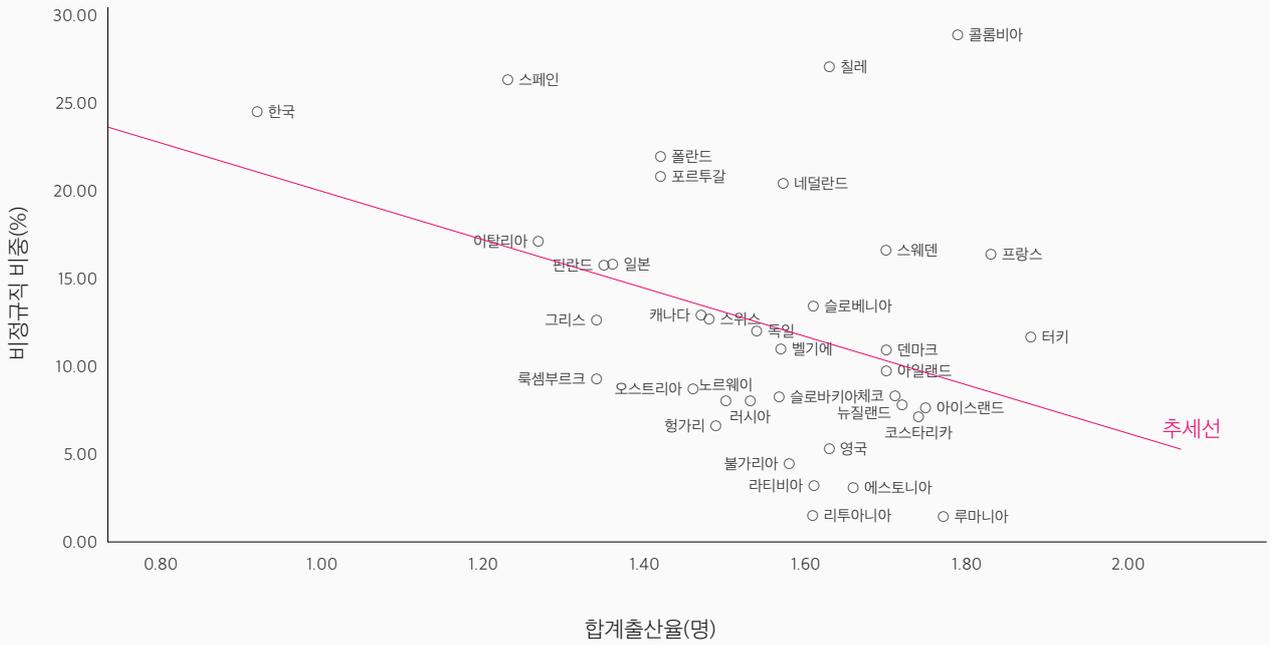
- 본 연구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국의 이중노동시장과 저출산 간의 관계 탐색을 목적으로 함.
- OECD 「Family Database」 및 「Labour Market Statistic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비정규직 비중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 2019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4.4%로, OECD 회원 38개국 중 4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반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 38개국 중 최하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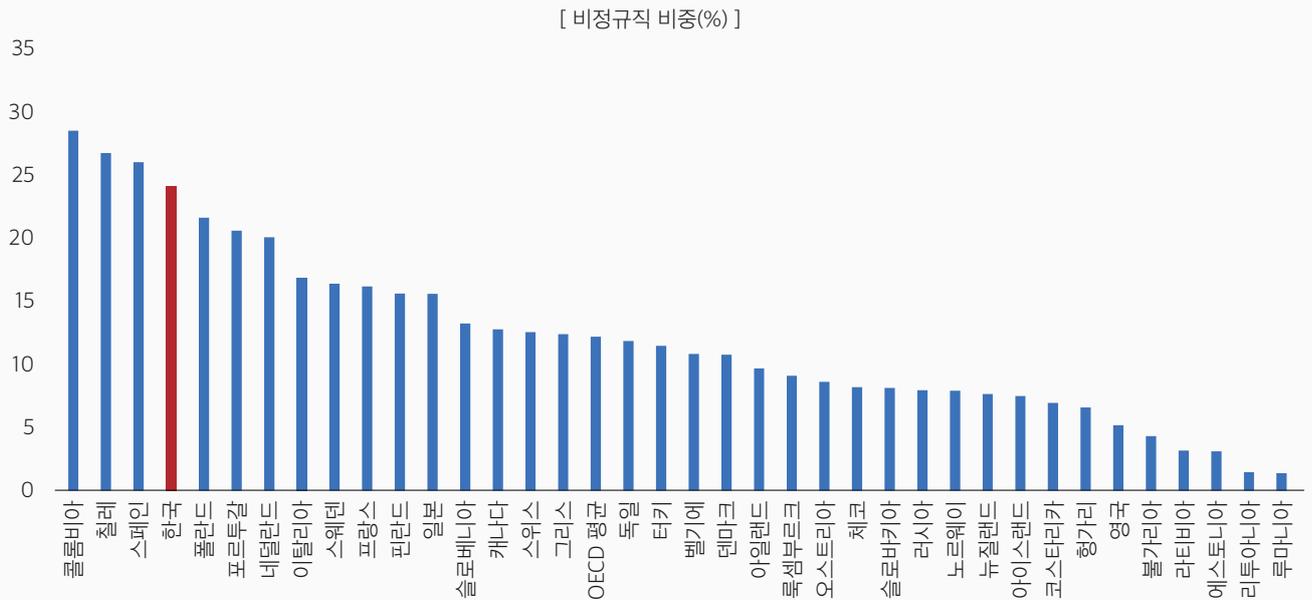
1) 본 원고는 'KWDI 성인지 통계 리포트 21-3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저출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원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https://gsis.kwdi.re.kr/gsis/kr/board/BoardDetail.html>).

[그림 1]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비정규직 비중 및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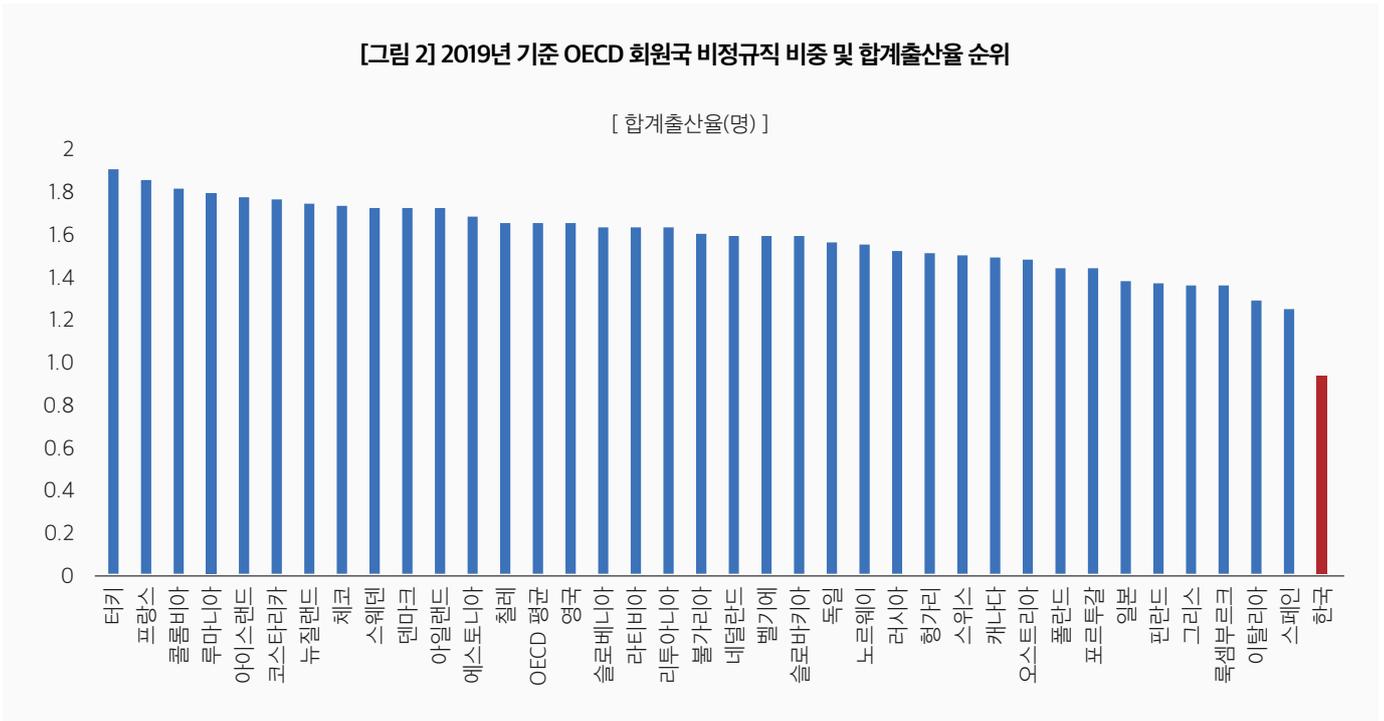


주: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temporary employment)이란 사전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 형태를 의미함.
 자료: OECD (2021.12.13. 인출), OECD Family Indicators 및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2]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비정규직 비중 및 합계출산율 순위



[그림 2]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비정규직 비중 및 합계출산율 순위



주: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temporary employment)이란 사전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 형태를 의미함.
 자료: OECD (2021.12.13. 인출), OECD Family Indicators 및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 2021년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8,066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38.4%이며,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91.1%)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52.9%)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 성별 및 연령대별 1인 가구(2020)

	2019		2020		2021	
	비정규직 규모 (천명)	비정규직 비중 (%)	비정규직 규모 (천명)	비정규직 비중 (%)	비정규직 규모 (천명)	비정규직 비중 (%)
농업, 임업 및 어업	78	1	75	1	80	1
광·제조업	670	9	604	8.1	635	7.9
제조업	669	8.9	601	8.1	631	7.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733	90	6,747	90.9	7,351	91.1
건설업	851	11.4	859	11.6	890	11
도소매·음식숙박업	1,470	19.7	1,415	19.1	1,447	1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775	50.5	3,850	51.8	4,257	5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37	8.5	623	8.4	757	9.4

주: 산업별 구성비는 분류상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2021년 자료

자료: 통계청 (2021.12.13.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10&conn_path=I3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9.8%) 및 50대(20.7%) 고령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

<표 2>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및 추이 ('15~'21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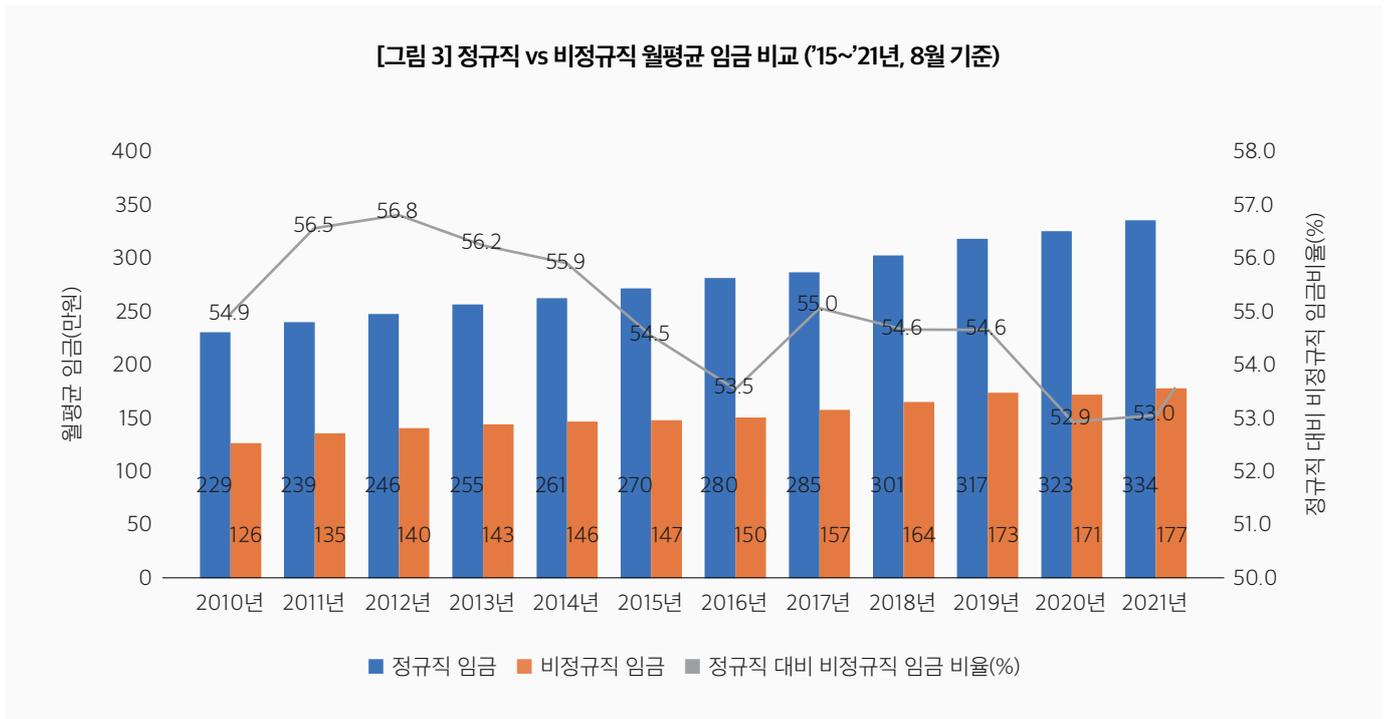
	2019		2020		2021	
	비정규직 규모 (천명)	비정규직 비중 (%)	비정규직 규모 (천명)	비정규직 비중 (%)	비정규직 규모 (천명)	비정규직 비중 (%)
(만) 15~19세	151	2	138	1.9	148	1.8
(만) 20~29세	1,362	18.2	1,283	17.3	1,414	17.5
(만) 30~39세	1,111	14.8	1,022	13.8	1,016	12.6
(만) 40~49세	1,346	18	1,308	17.6	1,419	17.6
(만) 50~59세	1,574	21	1,543	20.8	1,667	20.7
(만) 60세 이상	1,938	25.9	2,132	28.7	2,403	29.8
계	7,481	100	7,426	100	8,066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2021년 자료

자료: 통계청 (2021.12.13.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조건 비교

-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노동시장에 받는 상대적 불이익이 큼.
- 2021년 한국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약 334만 원인데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약 177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약 53%에 불과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2021년 자료

자료: 통계청 (2021.12.13.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3

- 근속기간의 경우도, 2020년 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은 97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9개월로 상당히 짧음.
- 사회보험의 경우도, 2020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50% point, 건강보험은 44% point, 고용보험은 43% point 차이를 보임.
- 근로복지 수혜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202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 격차는 상여금의 경우 약 51% point, 시간외수당은 37% point, 유급휴가는 48% point, 퇴직급여는 51% point 차이를 보임.

[표 3] 정규직 vs 비정규직 근로복지 수혜율 비교 ('15~'20년, 8월 기준)

(단위: %, % point)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2015	상여금	85.0	39.0	46.0
	시간외수당	58.4	23.8	34.6
	유급휴가	73.9	31.9	42
	퇴직급여	84	40.6	43.4
2016	상여금	85.5	38.2	47.3
	시간외수당	58.5	24.4	34.1
	유급휴가	74.3	31.4	42.9
	퇴직급여	85.5	41	44.5
2017	상여금	86.2	39.1	47.1
	시간외수당	59.3	24.2	35.1
	유급휴가	75.7	31.7	44
	퇴직급여	87.8	41.5	46.3
2018	상여금	86.4	37.8	48.6
	시간외수당	59.7	24.6	35.1
	유급휴가	77.9	32.1	45.8
	퇴직급여	89.9	41.5	48.4
2019	상여금	86.4	38.2	48.2
	시간외수당	60.9	25.9	35
	유급휴가	80.1	33	47.1
	퇴직급여	91.7	42.9	48.8
2020	상여금	86.7	35.7	51
	시간외수당	64.9	27.6	37.3
	유급휴가	83.3	35.1	48.2
	퇴직급여	93.5	42.7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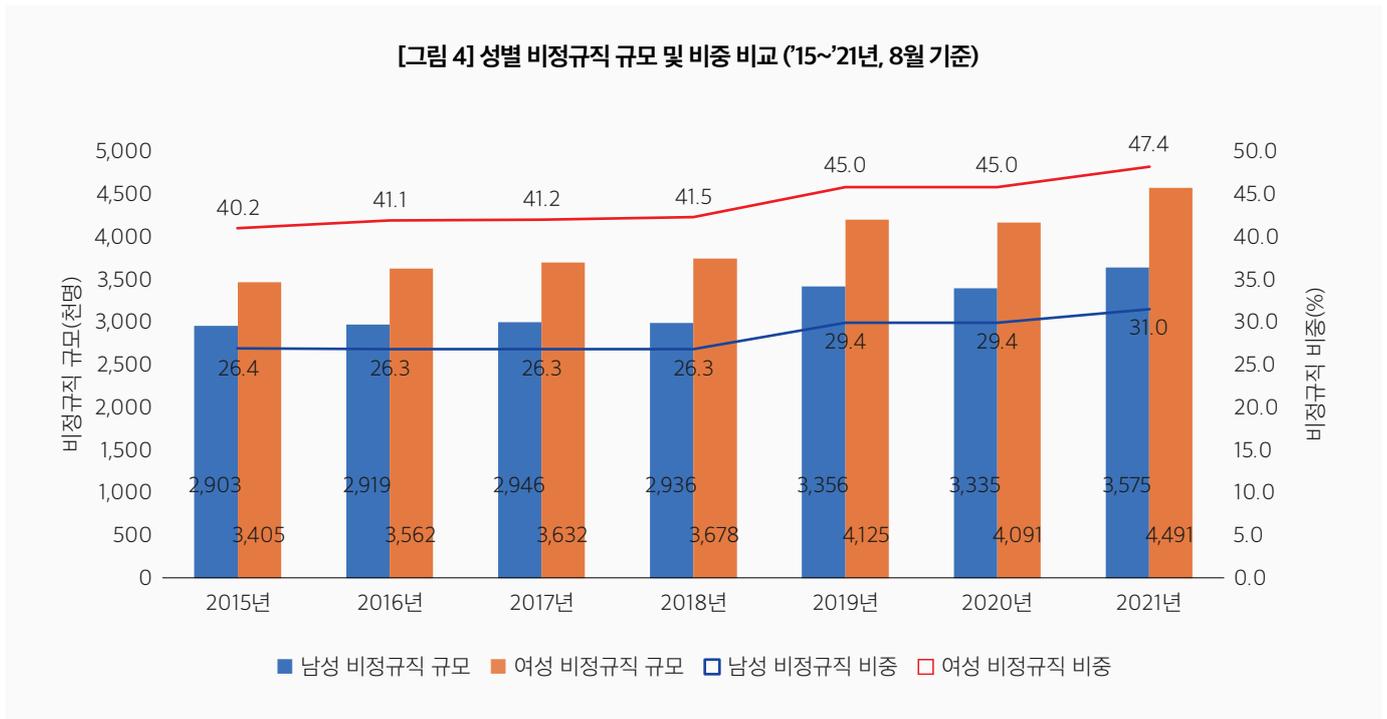
주: 유급휴가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2021년 자료

자료: 통계청 (2021.12.13.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79S&conn_path=I3

성별 비정규직 비교

-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과 비교하여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경험함.
- 2021년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4,491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7.4%임. 반면, 남성 비정규직 규모는 3,575천 명이고, 그 비중도 31.0%로 더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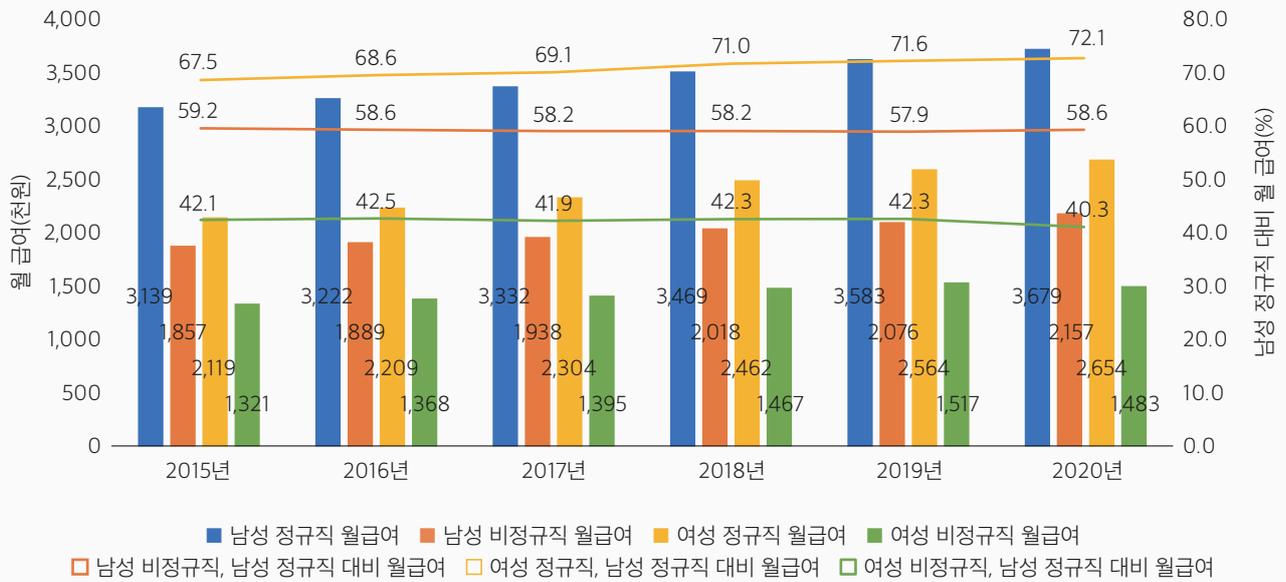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2021년 자료

자료: 통계청 (2021.12.13.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

- 2020년 성별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를 비교해보면, 남성 정규직 월평균 급여 대비, 남성 비정규직은 58.6%, 여성 비정규직은 40.3%로 같은 비정규직이어도 여성 비정규직의 월 급여가 낮았음.

[그림 5] 남성 정규직 대비 성별 비정규직 월평균 급여 비교 ('15~'20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2020년 자료

자료: 고용노동부 (2021.12.13. 인출), http://stathtml.moel.go.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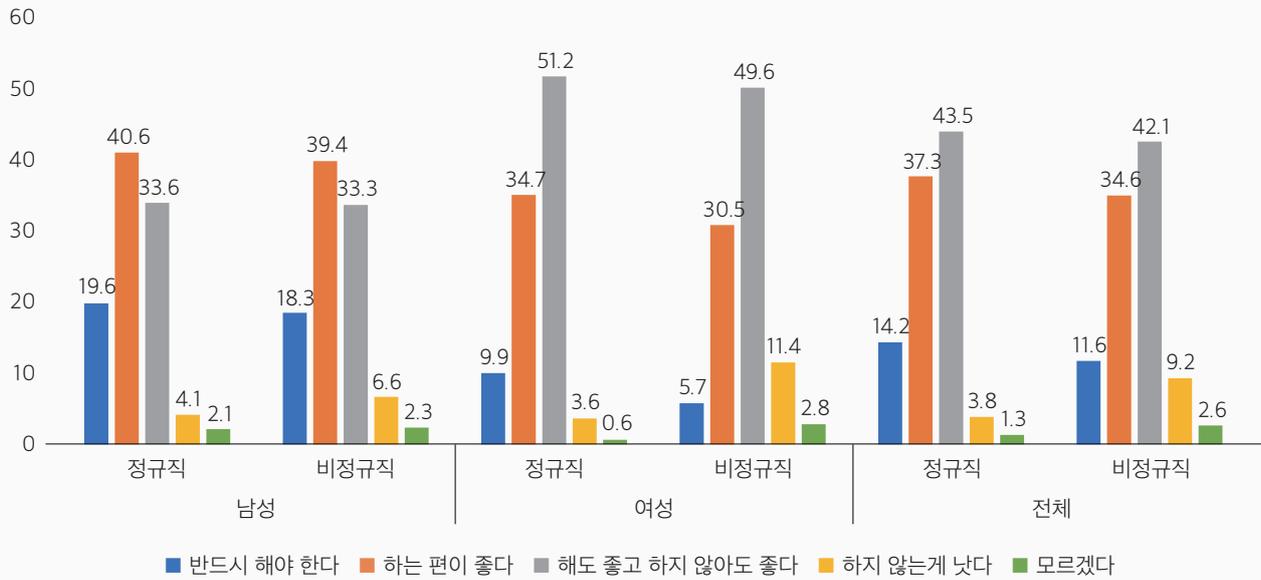
- 연령별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대까지는 성별 비정규직 비율이 비슷하나, 30세부터 성별 간 명확한 차이를 보임. 남성의 경우 은퇴 시점인 50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올라감.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연령인 30대를 기점으로 크게 올라감.

근로 형태에 따른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남녀 차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남.
- 근로 형태에 따른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015년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에 긍정적으로(“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정규직(60.2%), 남성 비정규직(57.7%), 여성 정규직(44.6%), 여성 비정규직(36.2%) 순으로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 6] 취업 미혼남녀(20~44세) 근로 형태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15년 기준)

(단위: %)



주: 항목 "전체"는 저자가 가공함

자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35-226.

- 근로 형태에 따른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2015년 남성 정규직(78.0%), 남성 비정규직(69.5%), 여성 정규직(66.8%), 여성 비정규직(63.1%) 순으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함.

[그림 7] 취업 미혼남녀(20~44세) 근로 형태별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15년 기준)

(단위: %)



주: 항목 "전체"는 저자가 가공함

자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6.

- 취업 미혼남녀(20~44세)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5년 남성 정규직은 1.93명, 남성 비정규직은 1.90명, 여성 정규직은 1.92명, 여성 비정규직은 1.96명으로 응답함. 반면, 무자녀(0명)를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 비정규직(2.0%), 남성 비정규직(1.9%), 남성 정규직(0.8%), 그리고 여성 정규직(0.2%) 순으로 높았음.

[표 4] 취업 미혼남녀(20~44세) 근로 형태별 이상 자녀 수 ('15년 기준)

(단위: %)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명)	평균 이상 자녀 수 (명)
남성	정규직	0.8	14.8	73.1	8.8	2.6	100.0 (386)	1.93
	비정규직	1.9	16.6	66.4	10.4	4.7	100.0 (211)	1.9
여성	정규직	0.2	17.1	69.2	9.1	4.4	100.0 (497)	1.92
	비정규직	2	13.9	66.1	11.8	6.1	100.0 (245)	1.96
전체	정규직	0.5	16.1	70.9	9	3.6	100.0 (883)	1.92
	비정규직	2	15.1	66.2	11.2	5.5	100.0 (456)	1.93

주: 항목 "전체"는 저자가 가공함

자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13.

맺음말

-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노동시장에서 받는 상대적 불이익이 크며,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과 비교하여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경험함. 또한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남녀 차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함. 이에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및 양성평등 인지적 통합적 접근방식이 중요함.

◎ 참고문헌

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성미, 임연구 (2019),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19-2. 성별 근로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특

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세림, 곽은혜, 정세은(2020). 출산과 여성, 한국노동연구원